

단단한 내실경영으로

더불어 사는 양돈업을 실천하는 보령지부



지리한 장마가 지나고 작열하는 태양 아래 사람들이 속속 휴가를 떠나는 계절, 보령지부를 찾아가는 필자의 발걸음에는 도심의 갑갑함을 벗어던지는 상쾌함이 묻어있다. 마치 여름휴가를 떠나는 기분으로 작열하는 태양아래 풍성히 머물어가는 곡식들을 바라보며, 삶의 여유를 한껏 느낄 수 있었던 길. 질어질 대로 질어진 신록이 펼쳐져 있는 한가로운 길은 그야말로 도시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풀리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이렇게 보령지부를 향하며 틈틈이 볼 수 있었던 양돈장의 모습은 양돈의 고장 '보령'에 도착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보령지부(지부장 정재홍)는 1999년 20여명정도로 구성된 친목단체인 '천북양돈회'를 모태로 2001년 2월에 지부로 설립되었다. 보령시 전체 중 천북면에서 사육하는 돼지두수가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천북면의 양돈산업은 대규모 양돈단지화되어있다고 한다. 지역적으로 집중된 형태의 양돈부락을 형성하고 있다.

설립 초창기보다 지금은 회원수가 배가 훨씬 넘을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보령지부의 양돈인들은 보령의 양돈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는 등 보령 지역산업의 기둥이 되고 있다.

양돈인 스스로 양돈산업 지킨다! 보령지부 방역단 운영

보령지부는 지부를 중심으로 민간 방역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체계화된 방역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타 지역의 모범이 되고 있다. 보령지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방역단은 지부 전회원으로 구성되어 지역별로 3개조로 편성·운영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역활동으로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

방역단은 평상시에도 방역시스템의 유지에 만전을 기해 비상시 언제나 가동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본격적인 방역 활동기에는 철야작업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양돈산업은 양돈인 스스로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무장되어 있다.

이는 방역활동에 있어 관주도의 지원과 방



▲ 회원들 서로간의 믿음과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지부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보령지부 집행부의 생각이다. 왼쪽부터 박상모 사무국장, 정재홍 지부장, 김미자 간사.

역활동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지부와 회원 스스로의 자체적인 방역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이미 재작년에 있었던 구제역 방역활동에서도 큰 효과를 거둔바 있다.

보령지부 방역단을 이끌고 있는 정재홍 지부장은 "방역은 당연히 양돈인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만, 이 같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회원들의 단합력은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회원간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경쟁력 향상의 지름길

"단기간에 보령지부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회원간의 단합과 정보교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정재홍 지부장은 보령지부의 성장배경에 회원간의 단합력과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회원들로 구성된 지부이지만 서로간의 믿음과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 보령지부 임원들은 “질병·사양·도축·유통의 청정화와 종돈개량에 성공하면 일본수출은 반드시 재개될 것”이라며, “일본에 돼지고기를 수출할 때 보다 현재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고기의 품질과 육질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왼쪽부터 박상모 사무국장, 김기은 부회장, 정재홍 지부장, 이정학 부회장, 김미자 간사)



▲ 기자재 공동구입으로 회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보령지부 회의실. 한쪽에는 동물약품 등을 보관하는 대형 냉장고가 비치되어 있다.

지부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보령지부 집행부의 생각이다.

매월 갖는 월례회의와 격월로 연계하여 개최하는 세미나를 통해 기술습득 및 의견교환의 기회를 갖는 것도 회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세미나 주제는 회원들이 궁금해 하고 필요로 하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많은 분야를 다루기 위해서 지부의 연간 사업 계획 수립 시 세무, 질병, 사양관리, 경영 등을

끌고루 편성하여 회원들이 필요로 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학 보령지부 부회장은 “실제로 기자재를 공동구매하여 마진 없이 회원들에게 공급하거나 사료값과 약품값 등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되면서 회원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고 투명한 지부운영과 정보공유의 장점을 설명한다.

꼼꼼한 회의록 작성으로 회원들의 의견수렴에 노력

보령지부의 기본운영 원칙은 내실 있는 지부 운영이라는 박상모 사무국장은, “보령지부는 모든 회의 시 회의록을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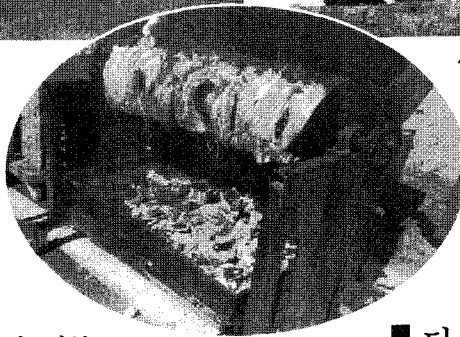
성하고 있다는 것은 지부운영의 작은 자랑”이라고 말한다. 회의록 작성이라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내실 있고 투명한 지부운영에 기초가 되고 있다. 또한 시식회, 야유회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각종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의견들이 수록되어 있는 회의록을 토대로 이사회를 통해 계획하고 끊임없이 점검하는 등 지부운영의 내실



▲ “양돈을 한다는 것은 쌀 다음의 주식이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이다”라며 “소비자 역시 돼지고기가 주식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정학 부회장은 말했다(사진은 시식회 장면)



▲ 보령지부는 부인회 결성을 통해 보다 끈끈한 회원단합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접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을 기하기 위해 보령지부의 지부 임원들은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사는 보령지부

내실 위주의 알찬 지부행사

이와 더불어 회원단합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는 보령지부는 야유회, 부인회, 송년회 등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지부를 결집하고 역량을 시험해보는 계기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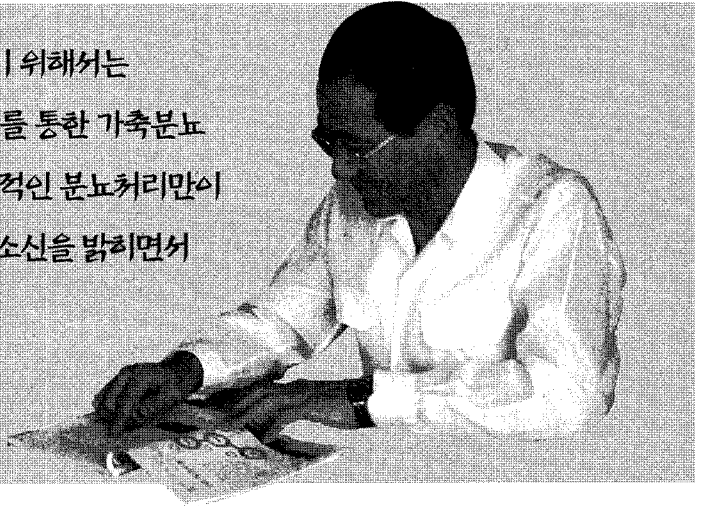
보령지역에서 격년제로 열리는 “만세보령제” 행사는 보령시가 주최하고 참가자가 3만 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보령지부는 축제기간 동안 지부회원들을 중심으로 돼지고기 시식회를 열어 돼지고기의 맛과 영양의 우수성을 알려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와 맞물려 개최되는 먼단위의 돼지고기 시식회를 마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수한 돼지고기를

특히 이와 같은 행사 때마다 지부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돼지고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행사진행에 있어서도 높은 참여의식을 갖고 임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보령지부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의식은 불우이웃돕기행사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중앙회에 보내는 ‘이웃사랑돼지고기보내기’ 캠페인 이외에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돼지고기를 보내는 등 온정을 베풀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가축분뇨공동처리장 연말 완공 예정

현재 대규모 양돈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보령지역의 양돈농가들의 가장 큰 고민 역시 분뇨처리 문제이다. 보령지부 역시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방식, 해양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분뇨를 해결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정재홍 지부장은 “축산분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종농가와 양돈농가 및 낙농농가와의 연계를 통한 가축분뇨 자원화가 필수적”이라며 “이와 같은 친환경적인 분뇨처리만이 축산분뇨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신을 밝히면서 경종농가가 축산 퇴·액비를 쉽게 사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분뇨처리의 해법은 모색되지 못한 형편이었다.

2003년부터 준비해 오던 보령지역 공동처리장이 연말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루 80톤 규모의 처리능력을 가진 공동처리장이 완공되면 양돈농가의 분뇨 처리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규모 양돈농가 분뇨처리에 국한된 것이므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정재홍 지부장은 “축산분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종농가와 양돈농가 및 낙농농가와의 연계를 통한 가축분뇨 자원화가 필수적”이라며 “이와 같은 친환경적인 분뇨처리만이 축산분뇨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신을 밝히면서 경종농가가 축산 퇴·액비를 쉽게 사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은 보령지역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령지역의 모든 양돈인들이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당초 보령지부가 천북면 소재의 천북양돈회를 중심으로 설립이 되어 현재 회원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지만, 지부가 점차적으로 발전하면서 타 면지역의 양돈인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한다. 또한 “보령지역 양돈인들이 하나로 단합해서 질병방역 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한 것처럼 양돈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다면 보령지역 양돈산업의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령지역 양돈인들이 지역사회에서도 책임 있는 지역발전의 역군으로써의 사명을 다하고 싶다고 밝혔다. **양돈**

협회를 중심으로 양돈산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

지부의 앞으로 계획을 묻자 정재홍 지부장

